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4.05.01 / 제3호

MATCH PREVIEW

순위 도약필요한 인천,
전북 상대로 2년 만의 승리 노린다

승리가 고평 인천,
서울과의 인경전을 승리로 장식하라

좋은 기억 남아있는 광주전,
홈에서도 승리 분위기 이어갈까

'최근 5G 중 1패' 인천,
울산 상대로 전적 우세 이어갈까

BLUEMAN INTERVIEW

'만족할 줄 모르는 무표정의 수비수' 김연수,
간절함으로 돌아온 인천에서
선수 생활 끝까지 뛰고 싶다

IUFC REPORTER REPORT

일본에서 온 어느 요니치 팬 이야기

ROOKIE INTERVIEW

'인천 공격진의 미래' 백민규,
자신감 갖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제3호 THE UNITED // 발행일 2024년 05월 01일 / 등록번호 영등포라00597

배부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침의대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가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재단 / 디자인 인쇄소 북원소 더스프츠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호텔앤리조트빌딩 22층
* 이 편지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가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INCHEON UNITED 2024 SQUAD

 김종민 전력분석관 PERFORMANCE ANALYST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1 민성준 GOAL KEEPER	 25 이범수 GOAL KEEPER	 29 김유성 GOAL KEEPER	 31 성윤수 GOAL KEEPER	 2 김건희 DEFENDER	 3 김연수 DEFENDER
 15 임형진 DEFENDER	 17 김준엽 DEFENDER	 20 델브리지 DEFENDER	 23 정동운 DEFENDER	 26 김성민 DEFENDER	 28 민경현 DEFENDER
 82 요니치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희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16 이가람 MIDFIELDER
 38 박진홍 MIDFIELDER	 40 음포쿠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8 천성훈 FORWARD	 19 송시우 FORWARD
 27 김보섭 FORWARD	 34 하동선 FORWARD	 66 김세훈 FORWARD	 77 박승호 FORWARD	 88 이종욱 FORWARD	



INCHEON UNITED 2024 SCHEDULE

01R	03월 02일(토) 16:30	0	인천 :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02R	03월 10일(일) 16:00	0	서울 : 인천	0	서울월드컵
03R	03월 17일(일) 16:30	3	울산 : 인천	3	울산문수축구
04R	03월 30일(토) 14: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05R	04월 03일(수) 19:30	2	광주 : 인천	3	광주축구전용
06R	04월 06일(토) 16:30	0	인천 : 제주	1	인천축구전용
07R	04월 14일(일) 16:30	1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17일(수) 19:00	1	인천 : 김해시청	0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1일(일) 14:00	4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10R	04월 28일(일) 14:0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11R	05월 01일(수) 19:00		인천 : 전북		인천축구전용
12R	05월 05일(일) 16:30		김천 : 인천		김천종합
13R	05월 11일(토) 16:3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14R	05월 18일(토) 16:30		대전 : 인천		대전월드컵
15R	05월 25일(토) 19:00		인천 : 광주		인천축구전용
16R	05월 29일(수) 19:3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17R	06월 01일(토) 19:00		수원FC : 인천		수원종합
18R	06월 16일(일) 18:00		전북 : 인천		전주월드컵
19R	06월 19일(수) 19:00		인천 : 김천		인천축구전용
20R	06월 23일(일) 18:00		인천 : 포항		인천축구전용
21R	06월 26일(수) 19:3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22R	06월 30일(일) 19: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23R	07월 05일(금) 19:30		인천 : 김천		인천축구전용
24R	07월 09일(화) 19:3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25R	07월 14일(일) 19:00		광주 : 인천		광주축구전용
26R	07월 21일(일) 19:00		인천 : 수원FC		인천축구전용
27R	07월 27일(토) 19:30		인천 : 서울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10일(토) 19:30		제주 : 인천		제주월드컵
29R	08월 17일(토) 19:30		대전 : 인천		대전월드컵
30R	08월 24일(토) 19:30		인천 : 전북		인천축구전용
31R	08월 31일(토) 19:30		대구 : 인천		DGB대구은행파크
32R	09월 15일(일) 16:30		김천 : 인천		김천종합
33R	09월 22일(일) 19:00		인천 : 울산		인천축구전용
34R	09월 27일(금) 19:30		포항 : 인천		포항스틸야드
35R	10월 06일(일) 15:00		인천 : 강원		인천축구전용

- 상기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JEONBUK PREVIEW

순위 도약 필요한 인천, 전북 상대로 2년 만의 승리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5월의 첫날 치르는 홈경기의 상대는 전북현대다. 4월 28일 9라운드 포항 원정 이후 3일 만에 치르는 경기이자 이번 시즌 전북과의 첫 맞대결이다. 인천은 지난 시즌 전북을 상대로 리그에서 4번과 FA컵에서 1번, 총 5번의 맞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2무 3패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었다.

전북은 지난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팀이 어려워도 트로피를 쟁기는 챔피언 본능을 보였던 전북이었지만 지난 시즌 FA컵 결승에서 패배하며 10년 만에 트로피 없는 시즌을 맞이했다. 선수, 팬 모두가 낮은 시즌을 보냈던 전북은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칼을 갈았다.

지난 시즌 아쉬웠던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시즌 리그에서 17골을 터트린 티아고와 에르난데스를 영입해 브라질 외인 듀오를 구축했다. 두 선수 모두 K리그에서 능력이 검증된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을 모았다. 여기에 새로운 외국인 선수인 비니시우스까지 합류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의 무게감이 한층 높아졌다.

그 밖에도 백승호를 떠나보냈지만 기존 주축 선수들을 지키면서 수비에 김태환과 이재익, 중원에 권창훈과 이영재까지 국내 선수들도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로 영입해 공수 양면으로 탄탄한 전력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시즌 시작 전 이적 시장의 행보에서 반드시 팀의 명예 회복에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일 정도로 활발하게 영입했다.

하지만 전북은 의지와 다르게 시즌 초반부터 팀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

다. 6라운드까지 3무 3패를 거두며 K리그 1, K리그 2 통틀어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한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로 인해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팀을 떠났다. 이후 박원재 감독 대행 체제로 바뀐 뒤 2경기 만에 리그 마수걸이 승리를 거뒀다.

감독 대행 체제로 바뀐 후 연승과 함께 멀티 득점 경기도 꾸준히 만들어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전북의 부진 극복 원동력은 송민규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민규는 2선 자원이지만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뛰어난 연계 능력도 매 경기 눈에 띈다. 인천은 송민규에 대한 수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은 5월부터 주축 자원인 이동준과 맹성웅이 팀에서 빠진다. 두 선수 모두 4월 29일자로 군에 입대하기 때문이다. 분위기 반전을 노릴 참이지만 전력 유출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리고 8라운드 기준 최다 실점 2위 팀으로 불안한 수비 라인은 계속 되고 있다. 인천은 이런 부분을 노려야 한다.

인천과 전북의 통산전적은 14승 21무 23패로 열세다. 특히 인천이 전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마지막 기억은 2년 전이다. 최근 6년간 맞대결로 기간을 늘려도 단 2승 밖에 거두지 못했다. 2승 모두 홈에서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난 시즌에 떠난 2번의 무승부도 모두 홈에서 얻은 결과다. 전북을 상대로 홈에서 아쉽게 승리를 놓쳤던 만큼 전북을 상대로 지난 시즌의 실욕을 펼쳐야 한다.



vs SEOUL PREVIEW

승리가 고픈 인천, 서울과의 인경전을 승리로 장식하라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qjou.ac.kr)

인천의 5월 두 번째 홈경기 상대는 지난 3월 2라운드에서 만났던 FC서울이다. 김천상무 원정 경기를 끝으로 1라운드 로빈을 마무리한 뒤 2라운드로 빈 첫 경기로 홈에서 서울을 맞이한다. 인천은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 2라운드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다수 만들어 내면서 공세에 나섰지만 아쉽게 0-0 무승부를 거뒀었다.

서울은 지난 시즌 누구보다 아쉬운 시즌을 보낸 팀이다. 2023시즌 전반기 내내 상위권에 머물렀고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이었다. 12개 팀 중에서 울산과 함께 팀 득점 1위에 올랐을 만큼 매서운 공격력을 선보였었다.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와 매 경기 고전했고 순위 결정에 영향이 큰 경기들을 잡지 못하며 결국 파이널 B로 향했다. 서울은 이런 일을 또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새 시즌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서울은 이번 시즌 시작 전부터 기대를 가장 많이 받은 팀이다.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즌 FA컵 우승을 이끌며 탁월한 지도 능력을 보여준 김기동 감독을 선임했다.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임상형 등 김기동 감독의 지도 아래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의 합류는 큰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았다.

여기에 솔리카, 최준, 강상우, 류재문, 시게히로를 영입해 공수 양면으로 부족했던 포지션을 성공적으로 보강했다. 특히 서울은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체시 린가드라는 초대형 영입을 터트렸다. 4시즌 연속 파이널 B에 머물렀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 시즌에는 반드시 파이널 A에 올라 명가 재건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시즌 시작 전 이적시장에서부터 강하게 표출했다.

하지만 서울은 시즌 초반 기대와는 다르게 벅커투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와의 시즌 첫 경기에서 패했고 이어진 인천과의 홈 개막전에선 5만 관중 앞에서 졸전을 펼쳤다. 아직까지 손발을 맞추고 김기동 감독의 색깔이 완전히 입혀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매 경기를 거듭할수록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김기동 감독이 포함 시절부터 잘 활용했던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꾸준히 공격포인트를 쌓고 있고 최준과 강상우도 경기를 거듭할수록 팀에 녹아들면서 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전방에서의 불안 요소들은 차츰 해결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후방 라인에 대한 걱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전 수비수인 김주성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나서 8라운드 기준 2경기에서 7실점을 내줬다. 후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치명적인 실수들도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한 압박으로 나서는 상대들에게 고전한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인천은 이 부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과 서울의 통산전적은 17승 22무 24패로 다소 열세다. 하지만 서울과의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선 4승 5무 1패를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인천은 최근 3년간 홈에서 서울에게 진 적이 없을 만큼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첫 만남에서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기억을 동기부여로 삼아 홈에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vs GWANGJU PREVIEW

좋은 기억 남아있는 광주전, 홈에서도 승리 분위기 이어갈까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광주와의 직전 원정 맞대결에서, 인천은 후반 추가시간 극장 역전골로 '원정 승'을 따냈다. 이제는 홈에서 맞붙는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5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광주FC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지난 5라운드 광주와의 원정경기에서 빙속 혈투 끝에 3-2로 '극장 역전승'을 만들었다. 이날 경기에서 인천은 전반 32분 박승호의 선제골로 앞서 나가며 1-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후반전에서, 홍시후가 후반 4분에 추가골을 넣으며 인천은 2-0으로 앞서 나갔다. 그러나 인천은 이후 이어진 광주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후반 21분과 32분에 각각 추격골과 동점골을 허용하며 2-2 균형을 내어주었다. 계속 이어진 치열한 공방전 속 후반 추가시간 3분, 제르소가 빠른 압박을 통해 상대 골키퍼의 퇴장을 유도했다. 이미 교체카드 5장을 전부 소진했던 광주는, 이로 인해 필드 플레이어에게 골문을 맡기게 되었다. 이러한 혼전 상황 속에서 인천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추가시간 6분, 제르소가 광주의 수비 빈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쇄도하여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인천은 까다로운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였다. 인천은 이날 경기를 승리하면서 2라운드 서울전부터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려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기 이후 인천은 리그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6라운드 제주와의 홈경기부터 8라운드 강원 원정경기까지 리그 3경기 연속 무승의 늪에 빠졌다. 직전 경기들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6라운드 제주전에서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은 채로 0-1로 패배했다. 7라운드 대구와의 홈경

기에서는, 전반 21분 김동민의 '홀 첫 득점'으로 1-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되었지만, 후반전 대구가 맹공 끝에 동점골을 헌납했고, 경기는 1-1 무승부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중간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대구전 이후 3일 뒤에 치러진 김해시청과의 코리아컵 3라운드 홈경기에서 인천은 천성훈의 올 시즌 첫 득점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후 4일 뒤 치러진 8라운드 강원전에서는 올 시즌 들어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4-1로 패배했다. 직전 7라운드 경기까지 인천은,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리그 최소 실점 2위 (8실점)를 기록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아쉬운 집중력으로 강원에게 총 4골을 내주었다. 그러나 인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34분, 제르소의 패스를 받은 무고사가 침착하게 추격골을 만들어 내며 영패를 면했다.

인천은 광주와의 최근 맞대결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인천은 광주에 패하지 않았다. 특히 직전 2번의 맞대결에서는 전부 승리하며 광주와의 대결에서 최근 상대 전적 우위를 점하였다. 작년 10월 28일 치러진 원정 경기에서는 U-22 선수를 대거 기용하고 2-0 완승을 거두었고, 이번 시즌 5라운드 원정에서는 극장 역전골로 승리를 장식했다.

이제는 많은 승리를 통해 리그 내에 확실한 강호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인천이다. 좋은 기억을 품고 있는 광주와의 경기에서 승리하여, 4일 뒤에 치러지는 울산과의 홈경기에서도 좋은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보자.



vs ULSAN PREVIEW

'최근 5G 중 1패' 인천, 울산 상대로 전적 우세 이어갈까

글 = 지문호 UTD기자 (jimh2001102@naver.com)

울산과의 맞대결로 인천은 5월 6경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오는 5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울산HD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5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인천은 지난 3라운드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치러진 울산HD와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3-3 무승부를 거두었다. 전반 32분 마틴 아담에게 프리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내어주었지만, 약 6분 뒤 김영권의 치명적인 백패스 미스를 무고사가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며 인천의 시즌 첫 득점포를 가동시켰고, 전반전은 1-1로 마무리되었다. 후반 3분, 김성민의 패스를 받은 무고사가 절묘한 터치 후 슈팅을 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이때 같이 쇄도하던 박승호가 세컨볼을 놓치지 않고 골문으로 밀어 넣으며 인천은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후반 8분과 후반 17분, 각각 이동경과 마틴 아담에게 동점골에 이어 역전골을 내어주었다. 이후 후반 27분 이명주가 울산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PK를 얻어내었고, 무고사가 마무리하며 스코어는 3-3 균형을 이루었다. 경기 막판에는 박승호와 제르소가 날카로운 역습을 이어나갔으나 득점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경기는 3-3 무승부로 종료되었다.

울산은 이번 시즌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은 7라운드 종료 시점 기준, 리그에서 단 1패만을 기록중이다. 특히 지난 4월 17일에 치러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에 1-0으로 승리하며 결승 진출에 한발짝 다가갔고, 이 결과를 통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

드컵 진출을 확정짓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울산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 인천과의 경기 4일 전, 울산은 '전적' 대전과 맞대결을 펼친다. 7라운드 종료 시점 기준 울산에게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구단이다. 이 경기에서도 울산 수비의 치명적인 백패스 미스로 대전에 선제골을 내어주었고, 뒤이어 뺨기골까지 허용하며 0-2로 패배했다.

인천은 울산과의 최근 5경기 전적에서 2승 2무 1패로 우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작년 4월 25일 0-1 패배 이후로, 인천은 울산에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패를 기록중이다. 원정 경기에서의 극장 역전승, 박승호의 K리그 데뷔골, 올 시즌 인천 득점의 시작 등 인천은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다.

인천은 5월에 총 6경기를 치른다. 5월의 마지막 경기이자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인천은 5월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다짐한다.



'만족할 줄 모르는 무표정의 수비수' 김연수 간절함으로 돌아온 인천에서 선수 생활 끝까지 뛰고 싶다

글=이환희 UTD기자(hwanhee515@naver.com)



IUFC TV

2024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더 깊고 다양하게 느끼는 방법!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치 다큐멘터리 시리즈
피치 위에서를 시청해보세요!



인천유나이티드 피치 위에서 | 🔍



4년 전 새로운 중앙 수비수가 인천에 왔다. 2016년 K3리그에서 선수 경력을 시작한 김연수가 K리그2에서의 활약을 인정받고 1부리그에 입성하는 순간이었다. 입단 이후 김연수는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 공격수와 거칠게 맞붙는 수비로 인천 팬들을 사로잡았다. 큰 부상을 당했지만 묵묵히 재활하며 1년 후 다시 인천 팬들 앞에 나섰던 김연수는 2022시즌을 서울 이랜드 FC에서 보낸 뒤 2023시즌을 앞두고 인천으로 돌아왔다. UTD기자단이 올 시즌 초반 활약상이 심상치 않은 수비수 김연수를 인터뷰했다.



작년보다 좋은 몸 상태, 그러나 만족하지 않는다

현재 인천유나이티드에는 실력이 출중한 중앙 수비수들이 많다.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본 중앙 수비수만 6명이다. 쉽지 않은 선의의 경쟁 속에서 김연수는 지금까지 출전했던 경기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연수는 “작년보다 초반 몸 상태가 가법다. 경기장에서 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겨서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더 나오고 있다”며 입을 뗀고 자신의 초반 경기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승리해도 웃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지금에 만족하고 싶지 않다. 더 배우면서 발전해야 한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번 시즌 김연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다. 공을 다루는 빈도가 늘었고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차단하는 장면이 많아졌다. 출장식에서 말했던 대로 30대에도 축구 실력이 늘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김연수는 “실력이 느는 비결을 굳이 꼽자면 항상 100% 이상을 쏟으면서 운동하는 것이다. 전진 드리블이나 전진 패스도 한 번 두 번 시도해보니 생각보다 잘 되더라. 공을 다루는 플레이가 원래의 내 장점은 아니지만 경쟁하려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프리시즌에 많이 노력했다. 주위 선수들도 좋게 말해줘서 자신감이 붙었다”고 뒷이야기를 풀었다.

축구에서 수비는 조직력이 가장 중요하다지만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번 시즌 김연수의 옆에는 요니치가, 뒤에는 이범수가 새로 왔다. 수비진에서 두 베테랑 선수의 영향력은 어떤지 물었다. “나는 누구랑 뛰어도 동료로 믿는다”고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김연수는 “요니치와 범수 형은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다. 요니치는 말을 많이 해주고 나를 잘 조종한다. 나는 경기장에서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인데 위치를 계속 잡아주니까 그 지시대로 가서 싸우면 된다. 공이 뒤로 빠져도 요니치가 다 끊어준다. 범수 형은 골키퍼지만 공을 건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킥으로 패스를 연결해준다.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는 덕분에 우리 팀 모두가 더 편해진다”고 설명했다. 요니치와 경기장에서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소통은 쉽다. 요니치가 ‘연수! 앞에 앞에 뒤에 뒤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비슷하게 공글리쉬로 대답한다. 서로 믿고 된다”고 웃으며 말했다.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다

김연수는 큰 부상에서 돌아온 2021시즌 리그에서 6경기를 뛰었다. 2022시즌에는 서울 이랜드 FC로 이적해서 37경기를 뛰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좋았던 것이 절반, 아쉬웠던 것이 절반이다. 그때 많이 배우고 경험치를 얻어서 지금 인천에 돌아와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1부리그에서 계속 경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2부리그로 돌아가 37경기를 뛰면서 선수로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침착성을 얻었다”고 돌아봤다.

당시의 부상은 가볍지 않았다. 부상 전 마지막 경기 날짜가 2020년 9월 27일이었고 2021년 9월 22일 경기가 복귀전이었을 정도로 오랜 재활이 필요했다. 김연수는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큰 아픔이 내가 몸 관리를 더 신중히 하고 선수로서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다”며 “부상 이후에 인간은 무조건 0에 수렴한다는 것을 배웠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결국 0이 된다고 하더라.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영원하지는 않으니 지금을 잘 보내고 다음을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배웠다”고 재활 기간에 얻은 교훈을 소개했다.

대학에서 졸업한 김연수는 K3리그 강릉시청축구단에서 1년을 뛴 후 프로팀 입단에 성공했고 프로에 입성한 2017시즌부터 2부리그에서 뛰면서 매해 출전 경기 수를 늘려갔다. 3시즌 간 프로 무대에서 같고 닮은 김연수는 2020시즌 인천에 입단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그의 선수 경력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성장 곡선을 그려왔다. 김연수는 “나의 꾸준함 덕분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같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킨 것 같다”고 자신의 장점을 말했다.



팬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어오른다

코로나19로 인해 금지되었던 육성 응원이 다시 가능해졌던 시기가 2022년 4월이었기 때문에 김연수는 인천에서의 첫 두 시즌 동안은 경기장에서 팬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당시에는 경기장에서 팬들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돌아온 김연수에게 인천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땠는지 물었다. 김연수는 “선수로서 가장 마음이 웅장할 때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라며 선수단 입장 때 팬들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부르기 시작했다. “그걸 들으면 피가 끓어오른다. 또 내가 수비에 성공했을 때 이름을 외쳐주면 힘이 많이 된다. 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경기한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직접 노래까지 부를 정도로 팬들의 응원에 감동한 김연수에게 특별히 좋아하는 인천유나이티드의 응원가가 있는지 물어봤다. 그는 이번에

는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대답했다. “다 좋은데 ‘인천은 나의 자존심’이라는 노래와 ‘서쪽 끝 도시의 사람들’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노래가 좋다”며 “인천 사람들의 특징을 담은 노랫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김연수가 인천으로 돌아온 것에는 조성환 감독에 대한 존경심이 주효했다. 감독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며 다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선수가 직접 전했다. 김연수는 “그때 보냈던 문자가 아직 남아 있다. 몇 십 줄은 된다”며 “이적할 팀을 알아보면 때였는데 조성환 감독님 생각이 먼저 났다. 밑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고 서로 유대관계도 좋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곳에서 불려도 무조건 감독님께 가겠다고 말했다. 감독님께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직접 연락했다.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곧바로 답장이 왔다”고 당시의 문자 내용을 밝혔다.

다시 인천으로 가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라고 하니 조성환 감독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은지 김연수에게 물었다. “감독님은 공정하시다. 열심히 준비하는 선수에게는 그에 보답하듯이 기회를 주신다.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 2020년에 처음 만났는데 내가 묵묵하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바로 출전 기회를 주셨다. 잘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믿고 기용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 묵묵한 성격이시지만 선수 관리도 잘해주신다. 나를 프로 무대에서 열 단계는 성장시켜주신 분”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연수는 경기에서 승리해도 웃지 않고 무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김연수가 인천 선수로서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2020시즌에 우리 팀이 15경기 동안 못 이기다가 대구FC 원정경기에서 처음 이겼다. 조성환 감독님 오시고 두 번째 경기였다. 그때 너무 좋았다. 선발 출전했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교체됐는데 경기 종료 후 너무 기뻐서 감독님께 안겼다. 그날부터 자신감이 생겨서 많이 이겼던 것 같다. 그날이 가장 기뻐고 크게 웃었다”며 2020시즌 첫 승을 거뒀던 경기를 꼽았다.



마흔 살까지 뛰고 인천에서 은퇴하고 싶다

김연수는 2023시즌 인천으로 돌아온 후 아빠가 되었다. 곧 아이가 태어나거나 갓난아이가 있는 선수들에게 말하는 ‘분유 버프’라는 각성 효과를 경험했는지 물었다. “분유 버프는 실제로 있는 것 같다.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100일까지는 힘든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는 육아 난이도가 확 낮아지더라. 아이가 너무 예쁘고 갈수록 사랑이 더 커진다. 아이를 보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가족끼리 좋은 관계에 있는 오반석과의 호흡에 대해서도 “서로 딱 보면 마음이 잘 맞는 게 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도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만 나이로 30대에 접어들 김연수지만 인천의 중앙 수비진 중에는 외국인 선수들을 포함해 나이가 더 많은 베테랑 선수들이 넷이나 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있지만 품이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존경심을 표하며 “나는 지금 나이에도 한 경기가 끝

나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오죽할까 싶다. 어떻게 프로에서 계속 살아남고 있는지 자기 관리법을 물어보고 나도 따라 하려고 한다. 베테랑 선수들을 보면 지금의 품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다”고 답했다.

나이가 들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축구 실력이 만개하는 선수들이 있다. 매 경기 발전하는 김연수를 기대해도 괜찮겠느냐는 물음에는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서 훈련장에서 100% 이상을 보여주고 팀에서 신임을 얻는다면 나는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언제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느냐는 물음에는 “항상 말하는 건데 얹고 길게 가고 싶다. 40살까지 프로선수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한다. 나를 좋게 봐주는 말이니깐 고맙다”며 오랜 기간 선수로서 뛰고 싶은 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김연수는 이번 시즌 목표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건 부상 없이 뛰면서 원하는 능력치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 선수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팀의 목표는 무조건 다시 AFC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이다. 파이널 A에 진출한 다음 챔피언스리그까지 나갈 수 있는 순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로서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인천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인천에서 은퇴하고 싶고 몇 년 뒤에는 나도 개인 콜송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다른 선수들의 노래가 좋더라”며 인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몇십 줄의 문자까지 보내는 간절함으로 다시 만나게 된 인천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김연수는 “평일 경기였던 김해시청과의 코리아컵 경기도 그렇게 어떤 경기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를 불러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데 그런 게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와주시는 것이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만큼 경기장에 들어가면 팬분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하겠다. 언제나 뒤에서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든든하다. 나는 팬분들께 인사하고 나서 항상 박수를 열두 번 친다. 열두 번째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상 내 마음속에 열두 번째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팬들에게 진심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일본에서 온 어느 요니치 팬 이야기

글 = 박범근 UTD 기자(keu0617@naver.com)

2024년 3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원정석을 가득 메운 인천유나이티드의 파랑검정색 유니폼 사이에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1명 있었다. 타 팀 유니폼을 입고 원정석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생각하면, 그 관중은 퇴장 조치 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관중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관중을 챙겨주며 새로운 친구로 받아들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입고 있던 유니폼 뒤에 적혀 있는 이름이 바로 요니치였기 때문이었다. 인천과 요니치, 히나타 씨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요니치는 8년 만에 인천으로 복귀했다. 요니치는 인천을 떠나 있던 지난 7년간, 일본, 중국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 활약했다. 중국 상하이 선화에서 뛴 1년을 제외하면, 요니치는 일본 J리그 세레소 오사카 한 팀에서만 6년을 뛰었다. 요니치는 인천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세레소에서도 뛰어난 수비력을 발휘하며 현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요니치는 세레소에서 두 번의 컵대회 우승에 공헌했다. 3번의 J리그 우수 선수상을 받으며 개인 기량도 인정받았다. 탄탄한 수비력을 물론, 높은 팀 충성심까지 자랑한 요니치는 세레소 역대 최고의 수비수 반열에 올랐다.

요니치를 향한 세레소 팬들의 애정은 요니치의 유니폼이 분홍색에서 파랑검정으로 바뀐 뒤에도 계속되었다. 요니치의 복귀를 알리는 인천 공식 SNS 오피셜 게시물에 세레소 팬들은 응원의 말을 남기며 요니치의 앞날에 행운을 빌었다. 심지어 어떤 팬은 요니치를 위해 바다를 건너 한국까지 찾아왔는데, 바로 그 팬이 지금부터 소개할 히나타 씨다.



요니치를 위해 한국까지 날아온 일본인 팬

일본 출신의 히나타 씨는 10년 넘게 세레소 오사카를 응원하고 있는 축구팬이다. 히나타 씨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 FC서울의 경기를 찾아왔다. 히나타 씨는 현재 한국이 아닌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다. 히나타 씨가 먼 서울까지 온 이유는 요니치였다. 다른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했다가 온 김에 축구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히나타 씨는 직접 요니치를 보고, 응원하겠다는 목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히나타 씨는 서울전에 요니치의 이름이 적힌 세레소 유니폼을 입고, 인천 팬들과 함께 인천과 요니치를 응원했다. 히나타 씨는 요니치의 모국인 크로아티아 국기까지 챙겨오며 요니치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히나타 씨의 진심은 요니치에게도 전해졌다. 서울전이 끝나고, 요니치는 관중석에서 세레소의 유니폼을 입고, 크로아티아 국기를 펼치며 응원하는 히나타 씨를 보았다. 히나타 씨의 응원에 크게 감동한 요니치는 구단을 통해 히나타 씨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초대했다.

히나타 씨가 요니치와 구단의 초대를 받아 인천을 방문한 것은 4월 6일 6라운드 제주유나이티드전이었다. 요니치는 히나타 씨를 위해 인천 폴코스를 준비했다. 스타디움 투어와 프리미엄석 티켓을 히나타 씨에게 제공했다. UTD기자단은 인천을 방문한 히나타 씨와 하루를 함께하며 그와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는 히나타 씨와 함께 한 그날의 이야기다.



일본에서 온 팬을 위한 요니치의 인천 폴코스

기자는 히나타 씨의 일일 가이드가 되어 그의 인천 방문기를 함께 했다. 히나타 씨는 지난 서울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도 요니치 이름이 새겨진 세레소 유니폼을 입고 왔다. 히나타 씨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히나타 씨가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가 본 곳은 인천공항이 전부였다. 한국을 방문한 횟수 자체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한 히나타 씨를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한국으로 오게 한 것은 축구와 요니치라는 존재 때문이었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예요. 서울전 때가 두 번째였고요. 10년 전쯤에 어머니와 함께 왔던 것이 처음이었어요. 지난 한국 여행이 10년 만의 일이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한국을 오네요”

스타디움 투어에 앞서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히나타 씨가 세레소, 요니치의 팬이 된 계기를 들었다. 히나타 씨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세레소의 연고지 오사카가 아닌 도쿄에 거주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도쿄에서 자란 그가 어떤 이유로 오사카팀과 요니치를 좋아하게 되

었는지 궁금했다.

“2013년에 FC 도쿄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를 보러 갔어요. 그날 세레소 공격수 가키타니 요이치로가 정말 잘했어요. 그 경기를 계기로 세레소와 가키타니의 팬이 되었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요니치가 세레소로 온 거예요. 요니치를 보니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유니폼 마킹을 가키타니로 했는데, 요니치로 바뀌었어요”

히나타 씨와 함께 스타디움 투어에 참석했다. 히나타 씨는 한국어를 하지 못해 투어 프로그램의 내용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경기장 곳곳을 다져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즐거워 했다.

“제가 응원하는 세레소에도 비슷한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지만, 경기 당일에는 하지 않아요. 경기 날 기자회견실, 라커룸, 심지어 그라운드까지 다녀보니 너무 재미있어요”

히나타 씨는 스타디움 투어를 알차게 즐겼다. 라커룸에서 요니치가 사용하는 자리를 구경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투어 일일 안내자로 나선 오반석과도 사진 촬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먼 걸음을 달려온 팬, 그 팬을 위한 요니치의 선물

스타디움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선수 입장이었다. 투어는 경기장에 도착하는 선수단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히나타 씨도 그 행렬에 참여했다. 선수단 한 명 한 명과 손을 맞대며 선수들을 환영했다. 그러다 마침내 요니치가 버스에서 내려 경기장으로 들어왔다. 히나타 씨는 벅찬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요니치는 세레소 유니폼을 입은 히나타 씨를 보고 반가워하며 손을 마주쳤다.

선수단 하이파이브로 스타디움 투어의 공식 일정이 전부 마무리되었다. 히나타 씨를 포함한 스타디움 투어 참가자들이 일정을 마치고 경기장을 나가려 한 순간, 누군가가 히나타 씨를 불렀다. 바로 요니치였다.

요니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인천 유니폼을 히나타 씨에게 선물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인까지 해주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니폼을 히나타 씨에게 주었다. 자신을 보러 먼 걸음을 달려와 준 팬을 위한 요니치의 서프라이즈였다. 요니치는 일본어로 ‘감사합니다’를 뜻하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는 인사말도 전하며 히나타 씨의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해 했다.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히나타 씨의 반응은 요니치보다 더 감격해 했다.

“인천 구단으로부터 초대 연락을 받았을 때, 믿기지가 않았어요. 스타디움 투어에 경기 티켓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죠. 게다가 요니치가 직접 저에게 유니폼을 선물해 주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정말

로 예상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인천 구단과 요니치에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요니치와의 짧은 만남이 끝나고, 히나타 씨는 블루마켓으로 향했다. 히나타 씨는 머플러, 경기장 3D 퍼즐 등 총 10만 원가량의 인천 굿즈를 구매했다. 히나타 씨는 요니치에게 받은 인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블루마켓에서 산 머플러를 두르며 인천을 응원할 준비를 마쳤다.

“파랑검정색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파랑검정은 세레소의 라이벌 감바 오사카를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조금 어색하지만, 인천 엠블럼과 요니치 이름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심지어 요니치 사인까지 있잖아요. 세레소 유니폼만 큼이나 소중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인천 팬 착장으로 갈아입은 히나타 씨는 푸드트럭에서 어묵과 피자를 사 들고 요니치가 제공한 프리미엄석으로 향했다. 히나타 씨는 관중석에서 크로아티아 국기를 흔들며 요니치를 응원했다. 요니치는 히나타 씨를 보고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히나타 씨와 함께 제주전을 관람했다. 히나타 씨는 좋은 장면에는 ‘나이스’라 외쳤고, 아쉬운 상황에서는 주변 관중처럼 탄식했다. 요니치가 인상적인 수비를 해낼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비록 경기는 인천이 0-1로 패했지만, 히나타 씨는 생애 첫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람을 마음껏 즐겼다.

경기가 끝나고, 히나타 씨는 UTD기자단을 통해 인천을 향한 감사함과 자신의 소망을 전했다. 히나타 씨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온 어느 요니치 팬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서울, 인천에서 만난 모든 인천 팬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주셨어요. 인천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좋은 기회 마련해주신 인천 구단과 관계자, 요니치 선수도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다음 인천 직관은 인천과 세레소의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이기를 바랍니다. 인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천 공격진의 미래’ 백민규, 자신감 갖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2020년대로 접어들 후 인천은 매년 뛰어난 신인 선수를 영입하며 리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성민, 민경현, 박승호, 최우진, 김건희 등 젊은 선수들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어느새 팀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인천이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해가 지나 2024년에도 또 다른 특급 신인이 맹활약을 예고하는 중이다. 공격진에서 과감하고 날카로운 플레이를 보여준 백민규가 그 주인공이다. UTD기자는 4월에 데뷔전을 치르며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한 백민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성환 감독의 눈을 사로잡은 ‘특급 재능’

백민규는 인천 입단 이전부터 청소년 대표팀을 거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고등학교 시절 평택진위FC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그가 인천에 입단한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품기도 했다. 인천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묻자 백민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대회에 나갔었다. 8강에서 전주 영생고를 상대로 출전해서 득점도 하고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그 경기를 조성환 감독님이 보고 가셨다. 결승전에서 수원 매탄고도 상대했는데, 그 경기도 보러 오셨다. 아마 그때부터 감독님께서 저를 지켜보셨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프로 입단 전부터 많은 팀의 관심을 받은 백민규는 최종적으로 인천 입단을 선택했다. 인천에 온 이유를 묻자 백민규는 “인천은 강팀이다. 작년에 AFC 챔피언스리그도 출전했고, 파이널A에도 계속 머무르고 있다. 갈수록 더 좋은 팀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좋은 팀에서 좋은 지도자에게 배우며 좋은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 인천에 왔다”고 답했다.



모든 면에서 최고인 팀, 인천

인천에 합류한 후 백민규는 전지훈련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팀 적응을 위해 노력했다. 첫 전지훈련에 대해 백민규는 “청소년 시절보다 더 좋은 숙소, 훈련장, 식사를 경험했다. 상상하던 것보다 환경이 더 좋아서 놀랐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는 가장 높은 학년에 있었지만, 프로에서는 내가 제일 낮은 위치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는 마인드로 훈련에 임했다. 훈련을 진행하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잘 알려주시고 기본부터 철저하게 지도해주셔서 좋았다”고 설명했다.

백민규가 인천에 오기 1년 전, 똑같이 평택진위FC에서 활약했던 선배 최우진, 김현서가 먼저 인천에 입단했다. 선배들이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묻자 백민규는 “인천에 오기 전 형들에게 경기 템포, 몸싸움 등을 물어봤었다. 선배들이 생각보다 활만하고, 적응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다. 같이 경기를 뛰면 감탄이 나오는 플레이를 하는 형들이라 함께 지내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프리시즌부터 백민규는 멋진 득점을 기록하며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득점 영상이 공개되면서 올해 인천을 책임질 기대주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백민규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뛰는다. 프리시즌에 득점할 수 있어서 물론 기뻐지만, 득점과 별개로 내용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살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다시 훈련에 임했다”면서 프리시즌의 활약을 돌아봤다.

백민규가 인천에 합류한 뒤 어느새 4개월이 지났다. 팀 적응이 어느 정도 됐는지 묻자 백민규는 “전술 면에서는 아직 100% 녹아들지는 않았다. 그래도 팀의 방향성을 쫓아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전술적 지시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생활적인 면에서는 정말 만족하고 있다. 클럽하우스, 식사, 주변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인천은 최고다”고 밝혔다.



K리그 무대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4월

백민규는 3월 10일에 펼쳐진 K리그 2라운드 FC서울 원정 경기에서 처음으로 경기 명단에 포함됐다.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묻자 백민규는 “명단이 발표되는 시간에 사우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성훈이 형한테 전화가 왔다. 갑작스레 명단에 포함돼서 축하한다고 얘기하셔서 농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진짜 내 이름이 있었다. 순간 너무 안 믿어서 망해졌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 몰라서 기뻐다. 그리고 만약 출전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자고 다짐했다”고 답했다.

FC서울 원정 경기에서 명단에는 들었지만, 백민규의 데뷔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 백민규의 데뷔전은 4월 6일에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였다. 후반에 교체 투입된 백민규는 활발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백민규는 “그 당시 몸 상태가 정말 좋았다. 자신감도 넘쳤고, 제 이름이 호명된 뒤에는 내가 제일 잘한다, 후회 없이 하자라는 말을 스스로 새기고 경기장으로 들어갔다”고 당시의 기분을 밝혔다. 특별한 전술적 지시는 없었는지를 묻자 백민규는 “전술적으로 특별한 주문을 하시진 않았다. 감독님께서 딱 한 마디를 해주셨는데, 절실하게 하라는 이야기였다. 기회에 보답하기 위해 절실하게 뛰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감격스러웠던 데뷔전에 이어 백민규는 4월 14일에 펼쳐진 대구FC와의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했다. 프로에서의 첫 선발 경기에 대해 백민규는 “교체로 뛴 때는 원래 뛰던 선수들이 지친 상태여서 공간도 많고, 여유도 있다. 그래서 득점의 기회도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런데 선발로 나서면 서로 체력이 충분히 데다 대구의 수비진이 좋아서 상대가 내려서면 공을 잡기 어려웠다. 어쩌다가 공을 잡아도 상대의 압박

이 바로 들어오고 그 속에서 경쟁했는데, 이날이 진정한 K리그를 맞본 때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플레이는 아쉬웠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느끼고 배웠다”고 회상했다.

백민규의 첫 선발 경기를 보고 팬덤에서는 작년 박승호의 데뷔전이 연상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박승호와의 관계에 대해 백민규는 “경기장에서 모든 부분을 닦고 싶은 형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많이 어쭈봤는데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대구전에 함께 선발로 출전할 때는 제게 긴장하지 말라, 네가 제일 잘 한다고 말씀하셨다.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했다”고 답했다.



‘K리그의 판을 흔들겠다’는 당찬 포부

백민규에게 프로 무대를 경험한 소감을 물어봤다. 백민규는 “사실 시즌 전에는 첫 시즌부터 잘하고 싶지만 어렵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빨리 팀에 녹아들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표가 컸다. 그런데 직접 부딪혀보니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느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면 K리그의 판을 흔드는 공격수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보완해야 할 점은 체력이다. 기술이 있어도 체력이 있어야 선보일 수 있고, 수비와 공격을 모두 전력으로 해야 하므로 체력적인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즌 목표에 대해 백민규는 “우선은 리그 10경기 출전, 공격포인트 5개가 목표다. 팬분들께 공을 잡으면 기대가 되는 선수, 경기가 안 풀릴 때 한 방을 보여줄 선수로 각인되고 싶다”고 밝혔다. 혹시 생각해둔 골 세레머니가 있는지 묻자 “생각한 것은 있지만, 지금은 비밀이다. 나중에 경기장에서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웃으면서 답했다.

마지막으로 백민규는 “제 생각을 인터뷰를 통해 팬분들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즐거웠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파랑검정 팬분들이 있기에 인천유나이티드가 있고, 또 제가 있다. 지금처럼 계속 뜨거운 열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반드시 경기장에서 멋진 골로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글 = 이지우 UTD기자(jw2000804@naver.com)